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 병 술



금년 4월 말까지 광주의 수출은 33억 달러, 전남은 97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43.8%, 45.8%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34.4%)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가 2.3%, 전남은 6.9%이다.

광주 수출 활성화 '물류'에 담 있다

얼마 전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Port of Singapore Authority)를 방문할 때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선박의 긴 행렬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입항을 위해 촘촘하게 줄지어 서있는 모습을 보면서 작지만 강한 싱가포르의 경쟁력을 느낄 수 있었다.

싱가포르항은 연간 약 3천만 TEUs를 처리하는 세계 1위의 항으로 부산항의 2.3배에 이른다. 싱가포르의 무역의존도는 361.7%이고(우리나라는 92.3%) GNP중 물류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물류산업은 금융산업과 함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광양항의 물동량은 1.8백만TEUs로 부산항(13.4백만TEUs)의 13.4%에 불과하다. 물류허브는 상품의

흐름인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심 지역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통관, 하역, 보험, 택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이 창출되는 무형의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동량의 지역간 불균형은 바로 지역경제의 불균형 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광양항 활성화는 수출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불균형 해소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20F 컨테이너 하나 환적으로 자동차 한 대 수출과 맞먹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산업은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산업이

근에 생산거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져 당초 기대와는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광양항도 물동량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는 주로 소량화물을 많이 확보해야 가능한 LCL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성터미널의 철도노선을 광양항까지 연결할 경우 장성의 ICD 활용이 가능하여 수도권 및 충청권 일부 물량이 장성터미널을 통해 광양항에 모이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광양항의 LCL서비스 활성화는 지역 및 인근 화물이 5배 정도의 비싼 운임을 지불하면서 부산항을 통해 수출할 필요가 없어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성터미널에서 광양항까지 철도를 이용한 내륙운송은 친환경 물류정책과도 부합된다. EU집행부가 유럽전역에서 도로 운송 대신 철도운송으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를 유도하고 있는 'Green Corridor'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볼만하다.

무엇든 물류의 흐름인 만큼 철도운송을 통해 장성터미널과 광양항이 지역 물류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다해 물류비 절감으로 광주 내륙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 수출을 활성화하고 국내의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바보 노무현'의 꿈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였다. 봉하마을서 날아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지 벌써 1년이 흐른 것이다. 삼가 명복을 두 손 모아 빌다.

민주주의와 지역주의 타파, 탈 권위주의, 남북화해,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고 평생을 뜨겁게 살았던 노 전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깊은 충격과 울림을 남기며 떠났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몸을 떠나보내지만 꿈은 결코 보내지 않았노라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바보 노무현'의 꿈은 여전히 꿈 속을 헤매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계층·이념 간 갈등은 깊어만 가고 남북관계는 천안함 침몰로 '전면전'을 운운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은 세종시 수정안에서 보듯이 먼 나라 이야기 가가 돼 가고 있고,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 안타깝고 개탄스런 점은 노 전대통령의 1주기를 맞아 진심어린 추도와 반성은 없고 '아전인수(我田引水)'와 세월이 열중하는 정차권의 모습이다. 코앞으로 닥친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만을 생각하며 셈법에 열중하는 여야의 정략적 모습은 역겹기조차 하다. 국민은 말하지 않아도 어떤 후보가, 어느 당이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노무현의 시대 정신'에 충실한 삶과 정치를 해왔는지 잘 알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특히 정차권은 지방선거에 지방이 빠지고 정차 바람이 불어대지만 유권자들은 '북풍'이나 '노풍'에 개의치 않을 것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국민분열과 '천안함 침몰'로 야기된 최대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은 국민통합을 통한 국력결집과 화해정신을 통한 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노 전대통령을 다시 생각케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주 혁신도시 이제부터 제 속도 내야

국토해양부가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공동혁신도시로 옮겨갈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승인이 모두 완료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르게 됐다.

지방 이전 계획이 승인된 기관들은 혁신도시특별법(43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기존 사유 등 부동산 처리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2012년까지 이전완료를 목표로 청사 설계 등 후속 업무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역시 기업·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을 홍보하는 등 조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목표로 2012년까지 나주 공동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가속도가 붙어야 한다. 16개 기관 중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한전 KDN이 부지(5만6천258㎡) 매입 예산 255억을 확보하고도 계약 체결을 미루는 등 일부 기관은 여전히 지방 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이전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민간 기업들도 혁신도시 투자를 꺼리고 있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고 지원을 통한 땅값 인하가 시급하다.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평당 조성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와 국도 1호선 연결도로 역시 아직 설계 비준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으나 가시화된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전을 미루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와 같은 강력한 이천추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이 정 재



우리가 사는 동안 참 많은 기념일이 있다. 광복절 같은 국가적인 기념일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일과 같은 개인적인 기념일도 있다. 그런데, 국가 기념일 중 상당수는 사실 우리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우리가 챙겨야 하는 날이 아닌 경우이나, 필자가 보기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국가의 공식적인 기념일이며서도 개인적인 기념일이 바로 어버이날이 아닌가 싶다.

이런 사건의 경우 대부분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결코 쉽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옛날 흥길동은 사회적 제도 탓에 그렇게 소원하던 '호부호형'을 하지 못했는데, 현대에서는 '호부호형'을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필자가 경험한 일인데, 일부 당사자들은 상대방을 그냥 원고나 피고로 부르며, 심지어는 아저씨, 아줌마로 부르는 경우가 보인다. 그래도 여전히 원만한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

존재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에게 부모는 그 존재의 전제이다. 부모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나와 가족이 존재하고, 가족을 전제로 하여 사회가 존재하며, 사회를 전제로 하여 국가가 존재하니 그 모든 존재의 근원에 부모가 있는 셈이다.

이때에는 당사자들보다 필자가 오히려 다행이라는 안도의 숨을 쉬게 된다. 얼마 전 모 TV에서 '가족'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그 전제가 만남, 갈등, 화해, 이별, 추억의 소주제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어느 한 부녀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다. 아버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딸은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 말로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부모로, 아빠가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럼, 아빠처럼, 보살펴 줄 수 있으니까'라고.

할리우드 영화가 마치 자신의 '전매특허'처럼 그 밑바탕에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닐 것이며, 특히 동양 유교사회의 도덕사상인 '삼강오륜'에 있어 그 시작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서부터 비롯하여 점점 넓혀가는 것 역시 다른 이유에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가장 원초적이면서 일차적인 관계가 요즘도 아무런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필자가 법관 생활을 하면서 놀라웠던 경험이 부모자식간, 형제자매간 소송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다.

지난주가 석가탄신일이었는데, 경전 중에 '부모은중경'이 있어,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모님의 크신 은덕 깊고도 중하여라. 크신 사랑 잠시라도 끊일 사이 없으시니, 앉으나 일어서나 그 마음이 따라가고, 말든지 가깝든지 크신 뜻은 함께 있네. 어머니 나이 높아 일백 살이 되었어도, 여든 된 아들·딸을 씌 없이 걱정하네. 이와 같은 크신 사랑 어느 때 끊어질까, 수명이 다 하시면 그때에나 쉬실까."

그러면서 그 특징이 부유한 집안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우리 주변 보통의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이며, 또한 여타 소송보다 그 갈등의 골이 깊고 심해 웬만해선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자는 아직도 믿으며, 믿고 싶고, 또 한 번 보고 싶다. 피는 여전히 물보다 진한을... <광주지방법원 판사>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하면 '혜택'

고속도로통행료 결제 전용 신용카드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에 전화 한통이면 신청, 발급이 가능하다.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5%의 통행료 할인은 물론 20km미만 구간을 출퇴근시간에 이용 시 20~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달에 1번 신용카드 청구서에 포함되어 청구되며, 사용금액에 따라 포인트까지 적립된다. 일반신용카드 기능이 전혀 없는 통행료결제 전용카드이기 때문에 분실했을 경우에도 안전하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불 하이패스 카드는 바로 무효카드로 등록되며, 3회 이상 무효카드삽입 후 하이패스차로 통행 시 10배의 부가통행료가 즉시 부과된다. ▲송영란·MH서비스(통합평영업소)

기 고

김 현 승



얼마 전 30여 년의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광주에 집을 풀었다. 공직에 입문해 줄곧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하다 지난 4월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로 파견된 때문이다. 순천에서 나고 자랐지만 정신적 문화적 토양이 같은, 넓은 의미에서 광주도 고향이라 생각되는 필자로서는 30여 년 만에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고향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또한 감사한다. 광주에 다시 돌아와 느낀 점은 광주

고, 경제적인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도구로 유니버시아드라는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광주의 무엇을 어떻게 포상해서 팔 것인가라는, '마케팅'의 문제이다.

광주는 빛의 도시다. 또 첨단 광산업의 도시이자, 문화도시이다. 광주유니버시아드는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잘 포상해 세계에 내보여야 한다. 유니버시아드 마케팅 프로그램은 여기서부터

세계 시장에 내놓을 상품 '광주' 만들기

가 청년시절 오고 가던 그때 그 도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변변한 기업체 하나 없던 소비도시에서 자동차·가전제품의 최대 생산지이자 첨단산업도시 수출생산도시로 탈바꿈해 있었다. 또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가 돼가고 있다. 미래 가장 경쟁력 있다는 두 가지 산업, 즉 문화·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비전을 지닌 도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광주를 깊이 있게 들여다 봤을 때야 알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출발한다. 우선 도시 정체성과 비전, 기업의 후원을 이끌어낼 만한 가치있는 주제를 정하고 세계적인 마케팅그룹과 협력해 생산지이자 첨단산업도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회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스타플레이어를 유치해 미디어의 관심도 끌어야 하고 동시에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지역의 특화 산업을 스포츠 산업에 연계시켜 동반 상승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때로는 지금 무한 경쟁시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도시와 도시가 경쟁해야 한다. 도시에서의 삶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외부의 투자를 끌어와 경제를 탄탄히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도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광주는 그리 잘 팔리는 '상품'이 아니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아직 인지도가 없는 무명의 상품인 셈이다.

며칠 전 조직위원회 주최로 마케팅 특강을 펼쳤던 전호문 목포대 교수는 뚜렷한 도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주제설정·사후 활용에 효과적인 사실과 장소 설계·스타를 활용한 홍보 전략·광산업과 스포츠를 연계해 첨단 스포츠제조업의 메카로 만드는 산업화 전략 등을 '광주유니버시아드 마케팅 전략'으로 제시했다. 전 교수의 제안처럼 현재 조직위원회는 광주의 산업과 문화를 접목시켜 역대 최고의 대회를 실현하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계산과 전략 하에 광주와 유니버시아드가 모두 흥하는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지금 그리는 그림을 통해 대회의 유무형 자산들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유니버시아드는 세계 시장에 광주라는 상품을 팔기 위한 일종의 판매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 광주를 널리 알리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는 단순히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첫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니버시아드는 세계 시장에 광주라는 상품을 팔기 위한 일종의 판매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 광주를 널리 알리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는 단순히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첫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니버시아드는 세계 시장에 광주라는 상품을 팔기 위한 일종의 판매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 광주를 널리 알리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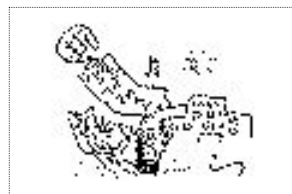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 等 鼓

특정 상품의 수급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과잉생산이나 자연재해로 손실을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올해도 불까지 이어진 이상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재배·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는 추석 때 내놓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 전쟁'을 치르고 있다.

조짐이다. 하지만 우선권은 광주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수에서 발표한 호남광역경제권 8대 프로젝트를 통해 '시카고상품거래소의 동북아 농산물 물류기지 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 또 한국거래소가 서울과 부산에 위치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배려가 필요하다.

상품거래소



19세기 미국 중서부 곡창지대인 시카고에서도 추운 겨울날씨로 인해 해마다 곡물수급이 문제가 됐다. 상인들의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줄 새로운 상거래방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1848년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선물(先物)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광주·전남은 상품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축산물과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최대 생산지이기도 하다. 시카고 선물거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까지 금과 원자재, 곡물 등 상품거래를 전담하는 '한국상품거래소' 설립을 본격 추진키로 하면서 자치단체별 유치 경쟁이 뜨겁다. 광주와 전북에 이어 대구까지 뛰어들면서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 경쟁의 재전이 될

국민의 정부는 한국선물거래소(현 한국거래소 통합) 부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실제 그 약속을 지켰다. 돈과 사람을 모으고 물류·금융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상품거래소 광주 유치는 낙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성사돼야 한다.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